

일본어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프로세스*

이길용**·손민수

(중앙대학교)

Abstract

Lee, Kil-yong · Son, Min-su. 2012.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in Japanese by Korean learn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161-176. In this study, focused on the first language-based strategies and the target language-based strategies about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trategies in Japanese by three Korean learner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arget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s, the frequency of the first language-based strategies and the target language-based strategies generally tended to decrease. However, the case of the beginning level learner, as learning progresses, the frequency of the target language-based strategies increased. Second, as target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s, the frequency of the first language-based strategies generally tended to decrease. However, as chaotic-period of the first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the intermediate-level learners increased the frequency of the first language based-strategies. Third, as target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s, the frequency of problem-solving strategy of the sentence unit increased than problem-solving strategy of unit vocabulary. This study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o say that by analyzing the longitudinal data of three cross-cutting learners of differing proficiency target language, we attempted to elucidate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Keywords: Communication Strategies, development process, the first language-based strategies, the target language-based strategies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 - 2010 - 332 - A00130)

** 제1 저자

I. 머리말

학습자가 제2언어로 의사소통을 피하는 도중에 의미진달에 지장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취하는 수단 및 행동, 또는 계획을 의사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ies)이라고 한다.

李吉鎔·孫旼秀(2011)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전략에 관한 연구는 다음 두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 (a) 제1언어기반전략, 목표언어기반전략, 비언어전략 등 보상전략(compensatory strategies)에 관한 연구(오기하라 [荻原] 1996; 진제희2000; 이민경2004 등)
- (b) 학습자의 목표언어운용능력과 의사소통전략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박현숙 1986; 고바야시 [小林] 1995; 후지나가 [藤長] 1996; 조민경1998; 오노 [大野] 2004; 황기동2006 등)

위의 연구 결과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은 대체로 제1언어기반전략 사용기(초기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목표언어기반전략 사용기(중기단계)를 거쳐 언어내용에 관한 전략 사용 감소기로 진행한다고 한다. 즉, 습득 초기단계에는 제1언어인 모어를 바탕으로 한 전략 및 비언어행동, 도움요청 등을 통해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고, 습득이 진행됨에 따라 목표언어를 바탕으로 한 유사어, 풀어말하기 등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문제가 줄어들게 되어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자체도 함께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습득은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표언어의 언어 규칙과 원리를 파악한 것처럼 보인 후에도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퇴행(backsliding)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문법 사항에 관해서는 U자형 습득(U-shaped learning) 현상을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전략의 습득에 있어서도 다양한 습득 단계가 존재하고, 앞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횡단적 연구가 많고(위의 (a)유형), 목표언어운용능력과 의사소통전략의 사용률 및 성공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b)유형),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프로세스에 대해 고찰한다. 제2언어습득자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에 관한 사례연구(case study)로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이하 학습자로 칭함) 3인의 종단적 담화자료를 분석하여, 제1언어기반전략이 목표언어기반전략으로 발달해 가는 프로세스의 규명을 시도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II장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습득 초기단계의 특징으로 알려진 제1언어기반전략과 중기단계의 특징으로 알려진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 실태를 알아본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금후의 과제를 제시한다.

II.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자료수집 개요

본 연구에서는 목표언어운용능력이 서로 다른 학습자 3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적 담화를 분석자료로 사용한다.²⁾ 담화자료는 일본어 학습자의 목표언어운용능력의 발달 과정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학습자가 일본에 도착한 직후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3~4개월에 한 번의 빈도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 조사자는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가 자유주제로 대화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녹음이 개시된 후에 자리를 비웠다. 담화자료의 통일성을 위하여 첫 대면 상황에서 수록된 격식적인 담화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담화수록 시기별 학습자 및 일본어 모어화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 1)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는 언어능력이 상이한 학습자(군)를 단일 시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진행된다. 습득정도가 다른 학습자(군)가 동일한 습득과정을 거친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횡단적 연구에서는 습득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습득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습득 과정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습자(군)가 습득을 진행해 가는 기간을 좇아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요구된다.
-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李吉鎔(2005)의 담화자료의 일부이다. 李吉鎔(2005)은 일본어 학습자의 말투전환에 관한 실태를 기술하고, 전환능력의 발달 과정의 규명을 시도한 연구이다.

학습자	제1기	제2기	제3기
KS·남· 22세~23세	JF·남·28세 2004년 4월 23일	JF·남·30세 2004년 8월 15일	JF·여·31세 2005년 1월 18일
HT·남· 24세~25세	JF·남·24세 2001년 5월 14일	JF·남·25세 2001년 9월 16일	JF·남·28세 2002년 1월 31일
JH·남· 28세	JF·남·28세 2004년 4월 23일	JF·남·30세 2004년 7월 31일	JF·여·30세 2004년 12월 11일

<표 1> 학습자 및 일본어 모어화자 정보

<표 1>의 학습자(이하 KS, HT, JH로 표기함) 및 대화상대자인 일본어 모어화자(이하 JF로 약칭함)의 연령은 수록 당시의 연령이며, 각 40분간의 담화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총 360분).

여기에서 조사협력자인 학습자 3인의 일본어 학습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둔다. 먼저 KS는 일본 체류 이전에 한국에서 6개월간 일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고 일본 체류 이후에는 일본어 전문학교 초급반에 소속하여 주당 25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HT는 한국에서 9년간 학습한 경험이 있고 일본 체류 이후에는 일본어 전문학교 중급반에 소속하여 주당 25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JH는 일본 체류 이전에 한국의 대학원에 재적하여 일본어를 전공으로 공부하였으며 동경에서 1년간 유학한 경험도 있다. 또한 일본 체류 이후에는 일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연구생으로서 일본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KS<HT<JH의 순으로 일본어운용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 순서를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하며,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어 모어화자는 일본어 교사 및 일본어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습자와는 모두 첫 대면 상황이다. KS의 제1기, 제2기, 제3기의 일본어 모어화자는 JH의 제1기, 제2기, 제3기와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 한국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남성의 일본어 모어화자와의 회화, 즉 남자끼리의 회화를 수록하고자 하였다. 연구 여건상 KS의 제3기 및 JH의 제3기의 대화상대자는 여성 교사가 담당했는데, 현재까지의 제2언어습득연구에 있어서, 특히 전략능력(strategic competence)의 습득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담화자료가 격식적인 상황에서의

일본어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담화자료는 李吉鎔(2005)의 전사 자료를 수정한 것이며, 기호는 우사미 [宇佐美] (1997)의 「기본적인 문자화 원칙 [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 (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 BTSJ)」을 참고로 전사하였다.³⁾

2. 의사소통전략의 분석대상

의사소통전략의 분류에 관해서는 Faerch & Kasper(1983), Tarone(1980)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용어 및 전체적인 목록화 원칙만이 다를 뿐이고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 분류 속에서도 꾸준히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어 온 항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제1언어기반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이 의도한 의미를 표현할 수단으로 자신

3) 전사 원칙 및 기호는 다음과 같다.

- (1) 한자거나 혼용문(漢字仮名交じり文)으로 적되, 어절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
- (2) 장음은 ‘히라가나 표기’, 모음을 길게 발음한 것은 ‘-’로 표기한다.
- (3) 한국어 및 외래어의 한국어식 발음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 》 안에 일본어 의미를 표기한다.
- (4) 맞장구는 발화주체의 발화문 안에 포함한다.
- (5) 일본어 발음은 원칙상 들리는 대로 적고, 표준 발음을 《 》 안에 표기한다.
- (6) 담화자료 속 인명, 지명 등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고유명사는 모두 가명 및 가공의 지명이다.
- (7) 기호
 - 『 』 : 타자발화나 과거의 자기발화의 직접인용
 - 「 」 : 기저발화와 다른 발화 부분의 강조, 또는 시각상의 구별
 - () : 맞장구 등 상대의 발화권 유지를 방해하지 않는 발화
 - { } : 비언어정보, 웃음 등의 설명
 - 《 》 : 일본어 공통어(표준어)의 의미 및 오용에 대한 바른 표현
 - [] : 발화의 의미가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의 주석 및 주변언어정보
 - ? : 의문문 및 의문의 기능을 가진 발화문
 - 。 : 발화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부분
 - 、 : 일정 시간 이상의 짧은 휴지(pause)
 - // : 발화가 겹치는 부분(// 겹치기 시작, / 겹치기 종료)
 - / / : 1초 이상의 침묵
 - ↑ : 어말 상승 억양

의 모어를 사용하거나 모어체계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목표언어기반 전략은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조정하여 원래의 발화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활용된 현상에 따라 유사어, 일반화, 예시, 풀어말하기, 재구성으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의사소통전략의 종류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종 류		내 용
제1언어 기반전략	모어사용	목표언어 발화 중 모어인 한국어를 그대로 발화한 것
	축어역	문자적 번역(literal translation)이라고도 불리며 모어의 단어, 숙어, 복합어 또는 구문을 목표언어에 그대로 대입하여 번역한 것
목표언어 기반전략	유사어	처음부터 의도한 의미는 아니지만 유사한 어휘, 혹은 동의어, 전달하려는 어휘보다 좁은 범위의 하위어 등으로 바꾸어 말하는 전략으로, 신조어도 포함하여 어휘단위의 언어교체에 해당
	일반화	포괄어 전략이라고도 불리며 의도했던 목표언어의 어휘보다 사용범위가 더 넓고 일반적인 상위영역의 어휘를 사용하는 전략
	예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 대신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행동의 특징적인 요소를 나열하거나 예를 들어 의미를 전달하는 전략
	풀어 말하기	묘사하기, 우회적으로 말하기 등으로도 불리며 처음에 의도한 목표언어 대신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어휘단위의 문제를 문장단위로 해결하는 전략
	재구성	의도하는 문법, 문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다른 문법이나 문형으로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는 전략으로, 문장단위의 언어교체에 해당

<표 2> 의사소통전략의 종류 및 내용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표 2>의 분석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자 담화에 나타난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실태를 살펴본다.

III.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실태

본 장에서는 먼저 학습자 3인의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결과를 조망한 후, 제1언어기반전략의 사용 실태와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 실태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학습자별 의사소통전략 사용 결과

다음 <표 3>은 학습자 3인의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종류 \ 학습자		KS			HT			JH		
		제1기	제2기	제3기	제1기	제2기	제3기	제1기	제2기	제3기
제1언어 기반전략	모어사용	19	7	1	2	4	6	-	1	-
	축어역	3	1	1	2	1	5	3	3	1
목표언어 기반전략	유사어	-	1	-	4	2	1	1	-	-
	일반화	-	1	-	-	-	-	-	-	-
	예시	-	-	1	2	-	-	-	-	-
	풀어말하기	1	1	4	4	2	3	-	1	2
	재구성	-	-	-	-	1	1	4	2	2
총사용수		23	11	7	14	10	16	8	7	5

<표 3>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결과

<표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전체적으로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질수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제1언어기반전략과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총사용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 (2) KS는 제1기·제2기에 제1언어기반전략(모어사용)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3기에 이르러서는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이 증가하고 제1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은 감소한다.
- (3) HT는 제1기에는 목표언어기반전략을 주로 사용하지만, 습득이 진행된 제3기에 오히려 제1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이 증가하고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이 감소한다.
- (4) JH는 제1기·제2기에 제1언어기반전략의 하나인 축어역과 목표언어기반전략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3기에 이르러 제1언어기반전략이 감소하고 목표언어기반전략(풀어말하기, 재구성)을 주로 사용한다.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모어사용과 같은 제1언어기반전략이 감소하고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추인하는 것이다(오기하라 [荻原] 1996; 후지나가 [藤長] 1996; 한상호1997, 오노 [大野] 2004 등).

그러나 제1언어기반전략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온 축어역 전략의 경우, 모어사용 전략과는 달리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져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HT의 경우, 다른 학습자들과는 달리 목표언어운용능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1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요인을 밝히기 위해 학습자별 제1언어기반전략의 사용 양상을 모어사용과 축어역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제1언어기반전략의 사용 실태

1) 모어사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T는, 타 학습자들과는 달리 습득이 진행된 제3기에 오히려 제1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이 증가하는 역방향 프로세스를 보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절에서는 모어사용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학습자별 모어사용 형태를 분류하면 <표 4>와 같이 된다.

항목	학습자	KS			HT			JH		
		제1기	제2기	제3기	제1기	제2기	제3기	제1기	제2기	제3기
명사	온전형식	6	3	-	2	-	3	-	1	-
	혼호형식	-	-	-	-	1	1	-	-	-
	조사	-	-	-	-	2	1	-	-	-
	부사·접속사	1	-	1	-	1	1	-	-	-
	동사·문장	12	4	-	-	-	-	-	-	-
	총사용수	19	7	1	2	4	6	-	1	-

<표 4> 모어사용 형태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KS는 명사 및 부사·접속사, 동사·문장 등을 사용하는데 온전한 형태의 모어를 사용한다.
- (b) HT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혼호(混淆)형식의 명사 및 한국어 조사를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형태의 모어를 사용한다.
- (c) JH는 모어사용이 거의 없다.

먼저 KS는, 의사소통문제에 직면했을 때 목표언어 어휘지식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온전한 형식의 명사나 동사, 부사 등의 모어를 사용하거나 ((예1), (예2) 참고), ‘뫼지’ 등과 같이 청자를 향한 발화가 아닌 독백적 발화 혹은 온전한 문장단위의 모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문제에 직면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예2) 참고).

- (예1) 09KS1 : 私は一、(JF : はい) あ一、/沈黙7秒/ 韓国の 大学で (JF : ふん) 어一 ひゅう
ひゅうかい? (JF : ん?)
010KS1 : ひゅうかい?
011JF : きゅうかい?
012KS1 : はい 휴 휴학。

- (예2) 470KS1 : ほとんど 私か (JF : うん) 어一 혼나다 私か、어一 어一 뫼지? {笑いながら} お父さん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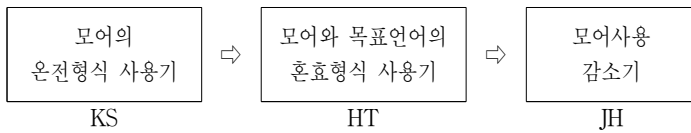
다음으로 HT의 예를 살펴보면, KS와 마찬가지로 명사 온전형식의 형태로 모어를 발화하기도 하지만 (예3)과 같이 모어사용 후에 바로 목표언어로 수정하는 등, 발화 실수로 볼 수 있는 모어사용 양상을 보이고 있어 KS의 사용 양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 (예3) 422HT3 : {笑いながら} あ、이거 「やばいんじゃないっすか」、これ。

그리고 HT의 특징적인 모어사용 양상으로서 혼효(混淆)형식의 명사 및 조사와 같은 불완전한 형태의 모어사용을 들 수 있다. (예4)에서 모어의 ‘대’와 목표언어의 ‘학(gaku)’라는 음절단위의 혼효형식을 볼 수 있다.

- (예4) 182HT2 : ま だいてい 대-가 <大学> 二年生とか にか <一> 年生ぐらい。

이상으로 모어사용 내용을 한국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습득의 도중에 있는 HT의 경우에는 발화 실수로도 볼 수 있는 비의도적인 모어를 발화하거나 모어와 목표언어가 섞인 혼효형식의 명사 및 조사를 사용하는 등 혼돈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별 모어사용의 특징적인 양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모어사용의 특징

2) 축어역

<표 3>에서 보듯이 축어역의 경우, 제1언어기반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언어 운용능력이 높아져도 사용된다는 점과 HT의 제3기에서는 그 사용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학습자별 축어역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KS의 축어역은 목표언어의 부족한 어휘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축어역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된다.
- (2) HT 제1기의 축어역 사용에서는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의미교섭이 이루어지는 등 KS의 축어역 사용 양상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제3기에 이르러서는 축어역 전후의 보충적인 설명으로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3)의 JH의 축어역 사용 양상과 유사한 것이다.
- (3) JH는 축어역 전후의 보충적인 설명을 통해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은 다음 (예5)를 통해 알아본다. (예5)에서 081KS1은 ‘큰 누나’라는 모어에 해당하는 목표언어 어휘지식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의문을 나타내는 억양을 통해 불명확함을 표명하며 ‘高い お姉さん’이라는 축어역 전략을 사용한다. 모어화자는 082JF에서 재설명을 요구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KS가 처음 의도한 ‘큰 누나’는 ‘누나’라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전달된다(084JF).

- (예5) 081KS1 : はい 家族は お父さんと {笑いながら} お母さんと 어— 高い お姉さん?
 082JF : うん?
 083KS1 : 高い お姉さん。
 084JF : あ ま お姉さん。

(2)에서는 HT의 제3기에 축어역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체류 기간별 사용 예를 살펴보았다. 먼저 체류 제1기의 (예6)에서 511JF의 “술을 조금씩 마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512HT1은 ‘그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의 축어역인 ‘そんなに’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そんなに’는 ‘정도가 심한 모습’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모어화자는 HT의 의도와 달리 513JF에서 “そんなに 飲むんですか?”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514HT1은 ‘一気になくてちよとつ’라는 다른 표현으로 수정함으로써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된다.

(예6) 511JF: あー えっ ちよとつづ 飲んじゃ だめです?。

512HT1: ジャー まあ そうな そんなに 飲む 人も いるんだけど、わだし《私》の 場合は そんなに 飲むんですけれども。

513JF: あ そんなに 飲むんですか?。{笑い}

514HT1: あー ま 아니 一気になくて ちよ //ちよとつづ

515JF: //あ ちよとつづ うんー

이어서 HT 제3기의 (예7)에서 674HT3은 불명확함의 표명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의미의 한국어식 표현 ‘年がある’를 발화하지만 다음 발화에서 바로 ‘三十一 四十年代’라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축어역을 보충하고 있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JH의 축어역과 유사한 양상이었다.

(예7) 674HT3: そのときは 先が 先 僕が ㄱ った あの これ スタテイツアの スタド 스타 스타디ッ
アー ということ で 来るんで、その人だちは 結構 年があるですよ。

675HT3: 三十一 四十年代의 (JF: ふんふん) が 基本 になって 来る、し。

(3)의 예인 다음 (예8)에서 107JH2는 ‘장점’의 축어역인 ‘長点’이라는 어휘의 발화 후에 ‘~といつか’라는 불명확함을 표명하거나 ‘いろんな ところが いい’라는 설명을 덧붙여 축어역에서 초래될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예8) 107JH2: 『学校 小さいですね』と 言われると 『ま はい そうですね』と いいながらも

(JF: うん) 『や でも あの 小なくて いろんな 面が いいんですよ』という 長点
といつか (JF: ああー) 『いろんな ところが いいんですよ』。

이상으로 HT 제3기의 축어역 사용이 증가한 것을 실마리로 하여 축어역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HT 제1기의 사용 양상과 제3기의 그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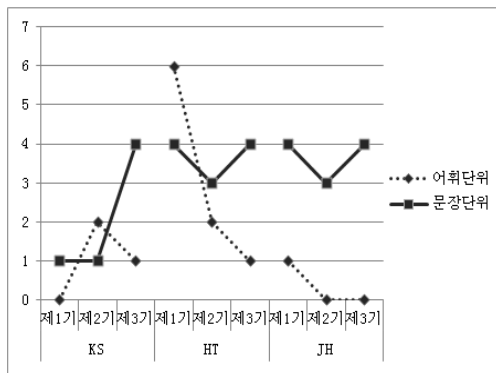
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축어역 전략의 사용이 증가한 것은 의사소통문제를 목표언어기반전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양상에 있어서도 습득 초기단계의 KS와는 달리 JH의 사용 양상과 유사해졌다는 점에서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축어역은 제1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목표언어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낮을 경우, 모어 그대로 발화되거나 회피될 가능성이 크다. 또 축어역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문제가 일어나거나 의미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지면 축어역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축어역 전후에 보충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의미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은 학습자에 있어서도 축어역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 실태

목표언어기반전략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2>에서는 목표언어기반전략의 하위 항목을 문제해결 단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즉, 어휘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인 유사어, 일반화, 예시와 문장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인 풀이말하기, 재구성으로 나누어 학습자별로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어떠한 발달 과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2>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 결과

- (1) KS는 어휘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은 각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문장단위의 경우는 뚜렷한 증가를 보인다.
- (2) HT는 어휘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문장단위의 경우는 대체로 지속적인 사용 경향을 보인다.
- (3) JH는 어휘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문장단위의 경우는 지속적인 사용 경향을 보인다.

먼저 (예9)는 KS의 제3기에 높은 사용률을 보인 문장단위 중 풀어말하기의 예문이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라는 139JF의 질문에, 140KS3에서 ‘서빙’이라는 목표언어 어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나르는 아르바이트’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목표언어로서는 비문이지만 풀어말하기 전략이 전후에 주저함이나 간투사 없이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예9) 139JF: どんな アルバイトですか。
 140KS3: 韓国の 店で (JF:うん) 運ぶの アルバイトです。

다음으로 문장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은 HT와 JH에서 꾸준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예10)은 HT 제2기의 재구성 예문이다. 343HT2는 ‘민방위 훈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길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처음 발화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문제를 느끼고, 자기발화 수정과 의문을 나타내는 울림 억양으로 발화상의 어려움을 표명한 후, ‘차가 멈추고 전부 건물 안으로 숨어서 길 위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문장을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 (예10) 343HT2: 道の なんか うごかえ うごっけーけている↑ (JF:うん) あの なんか 車とか 止まって 全部、(JF:うんうんうん) 地下に 逃げて だいてい 地下に 逃げるん じゃなくて 建物の中に入って (JF:うん) 道の 中で 人が あるっ 歩いているものみ 姿 全然 見えない (JF:うんー) ことですよ?

이상으로 목표언어기반전략을 문제해결 단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목표언어 운용능력이 높아질수록 어휘단위의 문제해결 전략보다는 문장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휘가 문장보다 습득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면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풀어말하기, 재구성 전략의 사용수도 함께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3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서 제1언어기반전략과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여 그 발달 프로세스의 규명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제1언어기반전략 및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총사용수는 대체로 감소한다. 다만 습득 초기단계 학습자(KS)의 경우는 습득이 진행됨에 따라 목표언어기반전략의 사용이 증가한다.
- (2) 제1언어기반전략은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습득의 도중에 있는 학습자(HT)의 경우는 모어와 목표언어의 혼효형식을 사용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 그 사용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축어역은 모어사용 전략과 달리 습득이 진행되어도 사용된다.
- (3) 목표언어기반전략은 목표언어운용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어휘단위의 문제해결 전략보다 문장단위의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수가 증가한다(HT, JH).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1언어기반전략과 목표언어기반전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프로세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 (a) 제1단계 : 제1언어기반전략 사용기
- (b) 제2단계 : 제1언어기반전략과 목표언어기반전략의 혼효기
- (c) 제3단계 : 목표언어기반전략 사용기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프로세스의 규명을 시도하여 그 발달 과정에 모어와 목표언어의 혼효형식이 나타나는 과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본 연구의 독창적인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으나 제1언어기반전략과 목표언어기반전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회피전략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또한 보상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원활화전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일본어 학습자 3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의 결과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전략의 발달 프로세스를 증명하기 위해

서는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학습자의 성별, 연령 등의 속성은 물론 대화 상대자의 속성 및 학습자와 대화 상대자와의 관계도 고려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횡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모두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박현숙(1986). 의사 소통 전략과 의사 소통 성취도의 측정 및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민경(2004). “대화 상대자에 따른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 연구:일본어권 학습자의 ‘목표어 자원의 결핍’ 상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6, 227-251, 이중언어학회.
- 진제희(2000).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조민경(1998). 한국 대학생의 의사소통전략에 관한 연구-어휘 단순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한상호(1997). “의사소통 전략에 바탕을 둔 영어 학습지도 방안.” 현대문법연구 10(1), 149-171, 현대문법학회.
- 황기동(2006). “의사소통능력과 성취전략.” 영미어문학연구 22(1), 59-82, 영미어문학회.
- Faerch, Claus & Kasper, Gabriele(1983). *Strategies in Interlanguage Communication*. Longman.
- Tarone, Elaine(1980). Communication strategies, foreigner talk, and repair in interlanguage. *Language Learning* 30(2), 417-431.
- 李吉鎔(2005). 『日本語學習者におけるスタイル切換え能力の発達－韓国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て－』 BookPark
- 李吉鎔·孫旼秀(2011).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トラテジー研究の課題」 『日本語學研究』 30 韓國日本語學會, pp.225-240
- 宇佐美まゆみ(1997). 「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 (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BTSJ) の開発について」 『日本人の談話行動のスクリプト・ストラテジーの研究とマルチメディア教材の試作』 文部省化学研究費一般研究 (C) 研究成果報告書

- 大野陽子(2004). 「中級日本語学習者の『発話のストラテジー』使用についての考察」 『三重大学留学センター紀要』6 三重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83-93
- 荻原稚佳子(1996). 「日本語学習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トラテジー使用の縦断的研究」 『講座日本語教育』31 早稲田大学日本語研究教育センター, pp.74-92
- 小林敏彦(1995). 「大学4年間における日本人英語学習者の口頭による語彙記述技能の習得に関する縦断的実証研究-2年目の中間報告-」 『北海学院大学人文論文集』5 北海学園大学英米文化学科, pp.135-176
- 藤長かおる(1996). 「初中級日本語学習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についての一考察-話し手として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トラテジーの観察-」 『日本語国際センター紀要』6 国際交流基金日本語国際センター, pp.51-69

이길용

ih_kilyong@cau.ac.kr

손민수

reella@naver.com

논문 접수일: 2012.03.30.

논문 심사일: 2012.04.15.~2012.05.10.

게재 확정일: 2012.05.15.